

<p>13. 11. 28.(화) 12시 20분 까지</p> <p>은행나무</p> <p>이외수</p> <p>너는 인어의 비늘이다. 아침에 재일 먼저 바람을 받아 잘게 썰어서 한짐씩 내 뜨락에 쓸어 놓고 노오란 햇빛만 새로 속아서 내 빈 가방 속에 담아 놓고 더 멀리도 더 가까이도 갈 수 없는 거리 첫 사랑 속 태우던 그 먼 시간 모두 모아 물소리로 설레고 있다.</p>	<p>14. 11. 28.(화) 12시 20분 까지</p> <p>유리창</p> <p>정지용</p> <p>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p>
<p>15. 11. 29. 월. 12시 20분 까지</p> <p>여승</p> <p>백석</p> <p>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려워졌다.</p> <p>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정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p> <p>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p> <p>산꿩도 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 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p>	<p>16. 11. 29. 월. 12시 20분 까지</p> <p>꽃을 위한 서시</p> <p>서정주</p> <p>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p> <p>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p> <p>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p> <p>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p> <p>.....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p>